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파트너십

전 세계 바다를 탐험하고 보존하는 것은 블랑팡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70 여 년의 역사를 지닌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 (Fifty Fathoms)를 만들어낸 블랑팡은 소중한 바다를 아끼는 탐험가, 포토그래퍼, 과학자, 환경 보호론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감이 바다를 위한 중요한 활동과 프로젝트 후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몇 년간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OC)는 프리스틴 씨즈(Pristine Seas; 원시 해양 탐사 프로젝트), 로랑 발레스타(Laurent Ballesta)의 고펜사(Gombessa) 프로젝트,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조직한 월드 오션 이니셔티브(World Ocean Initiative), 매년 뉴욕의 UN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 월드 오션 데이(World Ocean Day) 등 다양한 우수 조직과 바다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블랑팡은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 창립 파트너로서 프리스틴 씨즈 프로젝트 후원에 앞장서 왔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전속 탐험가 엔리크 살라(Enric Sala) 박사가 주도하는 프리스틴 씨즈 원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소중한 바다를 탐험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원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와 촬영을 진행했고, 덕분에 대중과 지역 정부에 생태계 가치와 고귀함을 알리는 동시에 그곳을 보호하겠다는 지역 사회의 후원과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미국, 칠레, 가봉, 키리바티, 코스타 리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세이셸, 그린란드 북부, 남미 파타고니아 지역이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로랑 발레스타의 고펜사 프로젝트는 희귀 해양 생물과 관련 현상을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발레스타와 그의 팀은 전자 방식의 완전 폐쇄회로 호흡기를 사용해 극도로 깊은 수심에 도달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과학적인 데이터, 사진, 영상들을 가져온다. 그들의 활동은 기술적, 과학적, 예술적 속성 3 가지 측면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까지 다섯 번의 고펜사 원정이 이루어졌고, 모두 블랑팡의 후원아래 진행되었다. 2013 년 진행된 첫 번째 원정은 한 때 7 천만 년 전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던 고대 물고기의 일종인 실러캔스(coelacanth) 어류를 찾아 인도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원정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파카라바(Fakarava)에서 이루어졌다. 목적은 마블드 그루퍼(marbled groupers)의 응집에 대한 수수께끼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다. 2015 년 세 번째 원정에서 로랑 발레스타는 남극 대륙으로 향했고, 지구 온난화로 위협받고 있는 이곳 해양 생태계가 품고 있는 풍성한 생물들을

최초로 포착했다. 2017년 네 번째 곰베사 원정은 다시 한번 파카라바로 떠났고, 그곳에서 환초 남쪽에 서식하고 있는 700여 마리의 그레이 리프 상어(gray reef sharks)의 사냥 습성을 연구했다. 네 번째 미션에서는 블랑팡의 기존 지원금과 더불어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첫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OC)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매출에서 나온 것이었다. 네 번째 원정에서는 마블드 그루퍼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갔다.

로랑 발레스타는 다섯 번째 원정에서 프랑스 해안가 지중해로 떠나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바닷속 비밀을 연구하고, 촬영하고, 밝혀냈다.

BOC II 워치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 매출에서 파생한 추가 지원금 덕분에 이 미션 동안 곰베사 팀은 폐쇄 회로 호흡기, 포화 잠수와 관련한 세계 최초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독보적 기술 덕분에 잠수부들은 28일 동안 60~145m 수심에서 총 400시간의 잠수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환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지도가 필수적이다. 블랑팡은 이를 위해 2013년 월드 오션 데이 동안 뉴욕에 위치한 국제 연합 본부에서 해양 사진 전시 *오션스(Oceans)*를 열었다.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Edition Fifty Fathoms) 포토그래퍼들의 사진뿐 아니라 프리스틴 씨즈와 곰베사 원정에서의 이미지와 영상을 선보인 이 전시에 10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매년 개최하는 사진 컨테스트 및 전시를 블랑팡이 후원하게 되었다.

주요 원정 프로젝트와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이외에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는 월드 오션 서밋(The Economist's World Ocean Summit)도 후원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2012년 창설한 이 서밋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블랑팡은 더욱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월드 오션 이니셔티브(World Ocean Initiative)로 서밋을 확대하며 2018년 함께 런칭하고 블랑팡이 특별 후원하는 *프로텍터스(The Protectors)* 영상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오션: 더 프로텍터스(Ocean: The Protectors)*는 전 세계 바다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과학적 방법과 파격적 사고 방식을 들여다본다. 이 시리즈는 바다 생태계 전선에서 노력하는 이들의 열정을 보여주며, 전 세계 바다를 탐험하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위기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앞장서는 것과 더불어 블랑팡은 해양 과학, 해양 이미지, 해양 과학 기술 부문에서 탁월한 이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한스 하스 피프티 패덤즈 어워드(Hans Hass Fifty Fathoms Award)도 후원하고 있다. 2007년 이래 블랑팡은 전 세계 스킨 다이빙 챔피언 지안루카 제노니(Gianluca Genoni)와도 협업하고 있다. 블랑팡의 후원으로 제노니는 많은 신기록을 달성했고, 인지도 제고에도 일조했으며, 높은 고도, 얼음 아래, 그리고 바다 아래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의학 발전에도 궁극적 기여를 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파트너십이 최근 진행된 새로운 프로젝트들과 함께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2018년 블랑팡은 프헤가뜨 아일랜드 프라이빗(Fregate Island Private), Coralive.org와 협업해 프헤가뜨 섬에서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 실험에 착수했다. 2020년에는 폴리네시아 해안에 서식하는 커다란 망치상어의 정체를 밝히고 개체수를 확인하며 그들을 관찰하는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 환경 협회(Mokarran

Protection Society environmental association)가 주도하는 첫 미션을 후원했다. 블랑팡의 대표이자 CEO인 마크 A. 하이예크 (Marc A. Hayek)가 영상 촬영을 자원하며 직접 미션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블랑팡은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Mokarran Protection Society)에 50피스 한정으로 생산하는 다이버 워치를 헌정하기도 했다. 브랜드 정기 후원금에 더해 각각의 시계 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1000 달러가 추가로 기부되었다.

현재까지 블랑팡이 바다를 탐험하고 보존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후원한 다채로운 활동들이 실제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전 세계 해양 보호 구역 면적이 2배, 즉 전 세계 8백만 km² 중 4백만 km²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